

문화 단신

‘내 마음의 고향’ 기술 시사회

국제영화제 출품 시도... 가을 개봉 예정

합세덕의 희곡 동승을 영상으로 옮긴 영화 ‘내 마음의 고향’이 4월 1일 충무로영상센터오재미동 소극장에서 기술 시사회를 가졌다.



이 영화는 1949년 개봉된 최초의 한국 불교영화 ‘마음의 고향’을 리메이크했으며 합세덕의 희곡 ‘동승’을 원작으로 했다.

정혜숙 기자

‘서도’는 마음을 찾아가는 수행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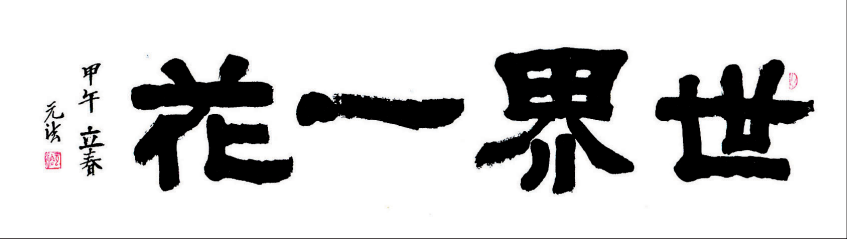
원법 스님 팔순 기념전... 4월 11일까지 대전갤러리서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법 스님의 팔순 기념전이 대전갤러리에서 4월11일까지 열린다.

30여년만에 이 시간 또한 참으로 은혜로운 삶이었으며, 이 길에 동참해온 분들께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서(書)와 다(茶)를 화두로 삼아 현대인들이 생활속에서 마음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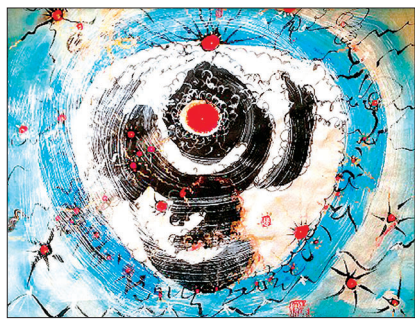


원법 스님의 팔순 기념전이 대전갤러리에서 열린다.

해피 만다라 동회 스님 ‘빛을 쏘다’展

4월 16일~22일 아라아트센터서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해피 만다라 동회 스님이 ‘빛을 쏘다’로 대중들을 찾아가는다.



4월 16일~22일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옴’의 빛을 그린 작품을 기본으로 ‘해피볼’ 등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하는 ‘옴’은 ‘빛의 씨앗’을 의미하며, 깨달음의 빛을 상징한다”고 전한다.

동회 스님은 “해피볼은 빛나는 생각, 빛나는 말, 빛나는 행으로 스스로를 빛나게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주변도 빛나고 행복하게 하는 수행자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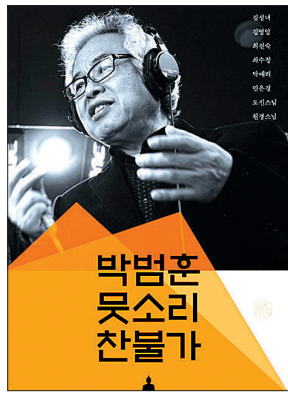
4월 16일 개막 행사 때는 인사동 문화거리 중심에서 총 길이 108미터의 긴 천에 작품을 직접 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이여 스님은 “또한 작품에서 내가 말

못 중생 소리 佛音에 담아

박범훈 교수 봉축 기념 ‘못소리 찬불가 공연’



“못소리는 중생들의 소리입니다. 억겁의 인연을 맺어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못소리죠. 그래서 찬불가는 법당 혹은 법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는 생활 속의 음악을 의미합니다.

불교음악가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가 4월 16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못소리 찬불가 연주회를 개최한다.

못소리 찬불가란 못사람들이 모여 불보살을 찬탄·공양하는 소리를 뜻한다. 이는 곧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부르는 생활 찬불가를 의미한다.

“34곡의 찬불가를 음반으로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국악반주로 제작된 찬불가와와는 전주, 간주, 합창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상용보다는 찬불가를 배우고 시김새 등을 참고 하는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서양음악과 국악을 전공한 박 교수는 찬

음반제작·악보집 발간 기념

“노래방에서 찬불가 불렀으면”

수익금 전액은 탄자니아

학교건립 기금으로 기부

4월 16일 국립극장서

불가는 국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한다. “서양음악의 모태를 기독교로 본다면 동양음악 특히, 우리의 국악은 불교음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현재, 국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는 영산회상, 화선곡, 염불 등의 불교음악이 대표적으로 연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불가의 보급은 새로운 창작국악의 보급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찬불가 운동을 통해 우리 국악을 널리 알리고자하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



불교음악가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가 4월 16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못소리 찬불가 연주회를 개최한다.

김성녀, 김영임, 최수정, 최진숙, 민은경, 박애리 명창 등과 도신 스님이 출연 ‘산사의 봄’ ‘놀이’라 삼세인연 ‘무상계’ ‘연꽃향기’ ‘누리가’ 등이 참여한다.

지휘에는 김희경(조계사 혼성 합창단 지휘자), 조원행(불광사 마하보디), 한정일(관문사 합창단 지휘자), 유훈석(중앙대 음악대 합창단 지휘자) 등이 참여한다.

한편, 박범훈 교수는 중앙대 음대를 졸업

하고 일본 무사시노 음대 작곡가와 동대학원에서 음악연구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에서 불교음악의 역사적 고찰과 실체를 연구 박사학위를 받았고 30년 동안 불교음악 연구와 작곡에 전념해왔다.

불화(佛畵), 전통으로 피어나다

탑골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전...5월 21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종로구 경운동 탑골미술관(관장 최희유)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4월 8일~ 5월 21일(수)까지 기획전 ‘불화(佛畵), 전통으로 피어나다’를 연다.

이번 불화전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118호 임석환 작가와 그의 제자 7명이 작가로 참여한다.

임석환 작가는 ‘불화는 붓 손질 한번, 선 하나에도 정신과 혼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자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불화의 의미를 전한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보신석가모니불, 신중탱화, 영산회상도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임석환 선생의 스승인 해암 스님이 1920년대 처음 기초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려던 습화(習畵)와 그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초(草)가 함께 전시된다.

이 ‘습화’와 ‘초’는 최초로 전시되는 것으로 전통미술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참여 관람객들이 다양하고 화려한 전통문양을 부채에 직접 그려보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십이지신을 액자에 그려볼 수 있는 체험도 진행된다.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불화의 의미를 전한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보신석가모니불, 신중탱화, 영산회상도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임석환 선생의 스승인 해암 스님이 1920년대 처음 기초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려던 습화(習畵)와 그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초(草)가 함께 전시된다.

이 ‘습화’와 ‘초’는 최초로 전시되는 것으로 전통미술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임석환의 ‘영산회상도’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기존에 없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면 자체 발광 인등으로 법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장엄됩니다.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불은 30년 정진으로, 스님들의 장엄 불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아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